

간헐적 팬데믹 시대

위기와 모순의 중첩과 대안

이도흠*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를 기점으로 인류 사회는 ‘간헐적 팬데믹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 이 시대는 생명과 환경의 위기, 기후위기, 자본주의체제의 위기, 4차 산업혁명의 위기가 중첩되어 있다. 이들은 서로 조건과 인과로 작용하며 중층결정(sur-determination)하기에 넷이 동시에 하나다. 환경파괴로 인하여 38%의 생명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며, 장기 대형 산불, 역대급의 홍수와 가뭄, 폭염, 폭설, 태풍, 빙하의 소멸, 미세먼지는 지구촌의 일상이 되었다. 상위 10%가 전체 부(富)의 절반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불평등은 극대화하였고, 평균이윤율과 생산성의 저하, 장기 침체로 자본주의 체제도 위기 상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운동이 무력화하고 0.001%가 모든 가치를 독점하는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 위기와 모순의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 체제이고 이미 모순들이 개량적 방식으로 지양될 임계점을 넘어섰기에, 자본주의의 해체를 전제하지 않은 대안들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민사회는 국가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생태 복지국가가 되도록, 구체적으로 토지와 데이터, 로봇을 공유부(common wealth)로 삼고, 탄소 배출 제로의 목표에 맞추어 글로벌 그린 뉴딜 정책을 수행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이제 이를 매개로 지구촌 사회는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의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개인도 타자를 위하여 욕망을 자발적으로 절제하는 데서 만족감을 얻는 소욕지족(少欲知足)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용어: 코로나 바이러스 19, 간헐적 팬데믹, 기후위기,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대안의 사회, 생태 복지국가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ahurum@hanmail.net

1. 머리글

지금 영웅도, 촛불을 든 시민도 아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이 지구촌에 대변화를 촉매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중의 일상에서부터 사회, 국가, 세계체제에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앞으로 세계사는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면서 코로나 전후로 나뉠 것이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쉽게 변형하고 면역항체가 형성되어도 그 유효기간이 짧기에 완전 종식이 쉽지 않을 것이다. 설혹 2021년에 백신으로 퇴치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불청객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비극이지만, 이제 지구촌 사회는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코로나 사태의 근본 원인은 인간이 농장, 목장, 광산, 공장, 주거지 개발을 하고자 생태계(ecosystem)의 순환을 담보해 줄 ‘빈틈’이나 완충지대의 숲마저 파괴한 탓이다. 그 바람에 그 숲에서 박쥐, 원숭이 등과 수억 년 동안 공존하던 바이러스가 인수(人獸) 공통의 바이러스로 변형한 업보다. 학자들은 임계점을 넘어선 숲 파괴로 매년 두세 종의 바이러스가 인수공통의 전염병으로 변형을 하고, 확률적으로 그중 한 바이러스가 4~5년에 한 번꼴로 팬데믹을 일으킬 것이라고 한다.

인류 문명의 열차는 거의 종점에 이르렀다. 현재 인류 사회는 단지 간헐적 팬데믹의 위기만이 아니라 생명과 환경의 위기, 기후위기,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4차 산업혁명의 위기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위기들은 서로 얽혀서 조건과 원인으로 작용하며 모두가 인류가 자본주의 체제를 매개로 완충 기능을 하는 ‘빈틈’을 넘어서서 탐욕을 증대한 데서 빚어지기에 넷이면서도 하나다. 이 상황을 필자는 ‘간헐적 팬데믹 시대(The Age of Intermittent Pandemics)’로 명명한다. 이 시대를 맞아 이의 양상과 원인을 살피고 대안을 모색한다.

2. 여러 위기의 양상

1) 기후위기의 양상

“세계는 매년 36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Ritchie and Max, 2020). “현재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65만 년 동안 지구 역사상 최고인 380ppm에 이르며, 21세기 중에 지구의 평균 온도는 섭씨 5도 이상 오를 것이다”(UNDP, 2007: 31~32). “1만 년 동안 4도 가량 오른 지구의 평균기온이 최근 1백 년 만에 1도가 상승하였다”(이근영·박기용·최우리, 2020.7.29). “지금 상태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없을 경우 ... 2080년까지 18억 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당하고, 해수면 상승 등으로 3억 3천만 명이 홍수를 피해 이주해야 하고, 2억 2천만 명에서 4억 명이 말라리아에 걸릴 것이다”(UNDP, 2007: 9~10).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2,000년 수준에서 밀 생산량은 50퍼센트, 쌀 생산량은 17퍼센트, 옥수수 생산량은 6퍼센트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리프킨, 2014: 466).

호주 산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2019~2020년 사이에 일어난 호주 산불로 1,860만 헥타르가 불타고 34명이 죽고 10억 마리의 동물이 죽었고 몇몇 종은 멸종위기에 처했다”(Wikipedia, 2020). 6개월에 걸쳐서 서울시 면적의 307배나 되는 광대한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호주 기상청(BOM)의 수석 연구 과학자 크리스 루카스(Chris Lucas)와 국가소방국의 연구원인 사라 해리스(Sarah Harris)가 44년 동안 39개 기상관측소의 기후변동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직접 원인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엘니뇨 현상, 이의 연장인 (인도양 양쪽의 온도 격차가 심해져 동아프리카에서는 홍수가 나고 호주는 더욱 건조해진) ‘인도양 쌍극자(Indian Ocean Dipole)’ 현상 때문이다”(Gaglioti, 2020). “2020년 1월에서 7월 사이에 발생한 러시아 산불/들불로만 한반도 면적의 2배에 이르는 1,900만 ha가 불탔으며”(윤신영, 2020.8.21), 광산과 목장, 농장 개발을 위한 인위적 발화도 합쳐진 브라질 열대우림에서는 “2019년에만 8만 9,178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 7월 한 달 동안만 6,091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박민철, 2020.8.2). 앞으로, “북극권의 영구동토층에 갇혀있던 1조 6천억 톤

의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짧은 시간에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과 같은 임계연쇄반응(criticality chain reaction)이 발생한다면, 인간의 의지로 자연을 되돌리는 작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윤신영, 2020.8.21)

“IPCC의 보고서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지 않으려면 금세기 말까지 지구 온난화를 1.5℃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2030년까지 약 45%를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 영점에 도달해야 함을 의미한다. IPCC는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시급하고 전례 없는 사회경제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Climate Action Summit 2019, 2019: 3).

2) 환경파괴와 생명 위기, 간헐적 팬데믹의 양상

이산화탄소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이처럼 엄청난 재앙이 발생하는데, 현재 지구는 중금속과 화학약품, 매연 등 셀 수 없는 독성물질과 플라스틱으로 대기와 산과 들과 바다가 오염되고, 기온이 상승하여 지구 생태계가 혼돈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2019년에 3억 6,8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산되었고”(Ian, 2021), “2010년에만 480만 톤에서 1,27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Jambeck et al., 2015: 768). 이 플라스틱을 먹고 매년 수많은 거북이와 고래, 상어들이 죽어가거나 병들고, 나노상태로 분해된 플라스틱은 물고기의 몸에 축적되고, 이를 인간이 섭취한다.

사람들이 쓰고 버린 쓰레기와 공장과 가정에서 버린 오염물질로 세계의 강들은 심각한 상태로 오염되었다.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모든 강의 약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가 낮은 수준이지만 평균에 오염되었으며, 4분의 3 이상의 강이 낮은 수준의 유기물질 오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분의 9 정도의 강이 낮게나마 염분에도 오염되었다”(UNEP, 2016: XXXI). 그로 인한 인간의 질병도 심각하다. “2013년에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 이상이 주혈흡충병(schistosomiasis)의 치료를 받았으며, 무려 15억 명이 토양 전달 장내 기생충에 감염됐다. 이 모든 질병들은 대부분 배설물과 관련이 있으며, 이 또한 대다수는 물에 인간이 버린 쓰레기가 있기 때문이다”(ibid.: 17).

“지금 1초 동안 0.6헥타르의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하루에만 100여 종의 생물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진다”(고어, 1994: 128). “국제자연보존연맹(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은 전 세계 과학자 1,700명이 참가하여 조사한 44,838종의 대상 동식물 가운데 38%인 16,928종이 멸종위기에 놓였다고 발표하였다”(Vié et al., 2008: 16).

환경파괴는 인간에게 되돌려지고 있다. 장기 대형 산불, 역대급의 홍수와 가뭄, 폭염과 폭설, 태풍, 빙하의 소멸, 미세먼지가 지구촌의 일상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은 막대한 농작물과 경제 손실을 겪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빈틈인 숲마저 파괴하자 그 숲에서 수천 만 년에서 수억 년에 걸쳐서 숲속의 동물들과 공존하던 바이러스가 인수(人獸) 공통의 바이러스로 변형하고 그중의 하나가 4~5년 주기로 팬데믹을 일으키고 있다. “메르스는 27개국에 걸쳐 2,494명을 감염시키고 858명을 사망으로 몰고갔으며, 사스는 26개국에서 8,096명을 감염시키고 774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21년 2월 8일 현재 세계 220개국에서 1억 662만 6,355명의 감염자와 232만 5,694명의 사망자를 낳은 채 멈추지 않고 퍼지고 있다”(https://coronaboard.kr).

환경파괴만이 아니다. 우리는 하루에만 2억 마리 이상의 육지 동물을 도살한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식용으로 720억 마리의 육지 동물을 살해한다. 물고기를 포함하면, 우리는 매일 30억 마리, 매년 1조 950억 마리의 동물을 죽인다”(Zampa, 2018). 단지 미각의 쾌락을 조금 더 느끼기 위하여 동물들을 산 채로 포를 뜨고, 끓이고, 튀긴다. 생물을 죽이면서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리고, 인간 스스로도 그 생물과 공존하며 누릴 수 있는 여러 이익을 손실하고 있으며 스스로도 자비심을 잃는다.

3) 불평등의 심화와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2018년 현재 한국의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8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9년의 44.38%에서부터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박근혜 정권 말기인 2016년의 47.76%,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에 48.79%, 2018년에 48.86%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월간 노동리뷰》, 2020.2: 88). “상위 10%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각각 93.9%와 90.8%를 차지한다”(김유리, 2019.10.10). “실업률은 4.2%에 달한다”(《월간 노동리뷰》, 2020.5: 93). 지금 대략 860만 명의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고도 절반의 월급을 받는 비정규직이며, 그중 상당수가 정리해고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계량화할 수 없지만, 부동산 등 자산의 불평등은 더욱 극심하다.

세계로 눈을 돌려도 마찬가지다. “슈퍼 갑부 8인의 재산이 세계 절반인 36억 명과 동등하고”(이윤정, 2017.1.6),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억만장자 2,153명이 46억 명보다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옥스팜 보고서》, 2020.1: 2).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orld Inequality Database)의 2020년 6월 30일 통계를 보면, 각국의 통계측정 연도가 다르지만, 세계 주요 국가의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43.3%, 일본 41.6%, 중국 41.4%, 미국 46.8%, 러시아 45.5%, 영국 35.5%, 프랑스 33.3%, 독일 36.8%, 스페인 34.9%에 달한다”(World Inequality Database: 2020). “상위 1%는 전체 소득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12.2%, 일본 10.4%, 중국 13.9%, 미국 20.5%, 러시아 20.2%, 영국 12.6%, 프랑스 11.2%, 독일 12.5%, 스페인 11.9%이며, 스웨덴 정도가 각각 29.8%, 9.0%로 양호한 편이다”(ibid).

한 도시 안에서 상위 10% 소득이 하위 10% 소득의 수백 배에 이른다. “2018년 서울의 경우 상위 10%의 종합소득 평균은 2억 2천 600만 9천 397원으로 하위 10%의 평균 116만 4천 957원의 194배에 달하였다”(김유리, 2020.1.28). “한국의 200대 기업의 최고경영인(CEO)급 임원 1인당 평균 보수는 6억 8783만 원으로 최저 연봉(2094만 원)과 비교하면 32.8배에 달한다”(송채경화, 2020.5.7). “2018년 기준 CEO와 일반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의 차이는 미국 265배, 인도 229배, 영국 201배, 독일 136배, 중국 127배에 달한다”(https://www.statista.com/).

측정연도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지니계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0.620에 이르며, 멕시코 0.458, 미국 0.390, 영국 0.357, 한국 0.355, 일본 0.339, 독일과 프랑스 0.289, 스웨덴 0.282, 덴마크 0.261에 이른다”(https://data.worldbank.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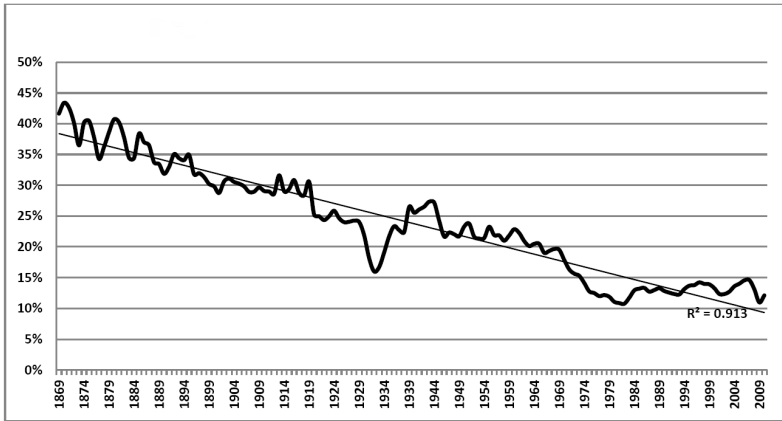
불평등은 비단 빈부격차로 인한 부자와 빈자의 갈등과 대립, 투쟁으로 그치지 않는다. 불평등은 개인의 몸과 마음을 파괴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해치고 사회를 오염시킨다. “불평등이 심할수록 사람들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 대신 경쟁과 힘에 의해 해결하는 전략을 선호하게 된다”(윌킨슨, 2008: 321). “불평등이 심해지면,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사회통합이 줄어들며 사회적 관계의 질은 내려가고, 범죄와 폭력은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건강은 나빠지고 평균 기대수명이 떨어지며, 사람들 사이의 신뢰수준은 내려간다”(ibid: 315). “소득 불평등이 높을수록, 적대감, 인종적 편견이 심하고 여성의 지위도 낮다”(ibid: 68). “불평등사회는 더욱 폭력적인 성향을 띠고, 수감자의 수가 더욱 많으며, 정신질환과 비만 수준 역시 훨씬 높고, 기대수명과 신뢰도가 낮다. (...) 당연한 결과로 평균소득을 조절한 후 더욱 평등해진 사회에서는 아동 복지가 좋아졌고 스트레스와 약물 사용이 줄어들었으며 유아사망률 또한 낮아졌다”(슈밥, 2016: 150).

자본주의 붕괴 가능성과 상쇄요인을 모두 종합하면, 자본의 대응과 상쇄요인에 따라 일시적으로 반등도 있지만 이윤율의 저하는 경향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869년에 46%에 달하던 이윤율은 전쟁 등의 시기에 일시적으로 반등이 있기는 했지만 마르크스의 분석대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로 인하여 ‘경향적으로’ 저하했으며, 이제는 10% 이하까지 하락하였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이윤율은 1930년대 대공황 때보다 낮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등장한 핵심 요인도 이윤율 저하이고, 자본은 신자유주의 체제 동안에 이윤율을 올리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일시적으로 반등시켰으나 결국 10%대로 하락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이는 이윤율 저하를 상쇄할 수 있는 요인이나 대안이 그리 효과적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가장 큰 변수는 부채다. 현재 세계의 정부 부채는 78조 146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세계총생산(GWP) 91조 9800억 달러의 84.96%에 달한다

<그림 1> 주요 국가의 평균이율을 변동 추이(1869~2010)



자료: Maito(2014: 9)

(<https://www.worldpopulationreview.com>). 이 부채는 즐기는커녕 시간당 500만 달러 이상 늘고 있어 부채가 GDP나 GW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히 늘고 있다. 문제는 금융위기 이후에는 개도국이 아니라 G7과 같은 선진국의 부채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기에 따른 공적 자금 투자와 복지확대로 정부 부채가 대폭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시점은 차이가 나지만, 2020년 7월 현재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133.96%, 일본은 258.0%, 독일은 64.48%, 영국은 89.20%, 프랑스는 104.79%, 이탈리아는 149.79%, 러시아는 22.61%, 중국은 48.73%이다 (<https://www.nationaldebtclocks.org>). 이에 따라 GDP 대비 2% 수준이던 이자 상환 비용이 2030년대에는 10%에 이를 것이다.

자본은 이 위기를 합법을 가장한 금융수탈과 탈취에 의한 축적으로 미봉하고 있다. 금융 수탈의 한 사례로, “MB 정부 3년간 고환율 정책으로 무려 174조 원의 돈이 서민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갔다. 그 결과 국민의 97%인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은 무려 15.3% 이상 감소했다”(송기균, 2012: 175). 국가와 자본이 연합하여 ‘탈취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by dispossession)’(하비, 2007: 194~201)을 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아니라 극단의 이익을 위

하여 노동자를 정리하고 하기에, 대다수 노동자가 생존 위기에 놓였다. 이렇게 자본은 금융수탈과 탈취에 의한 축적을 자행하고 국가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대신 자본과 국가 모두 정당성의 위기를 맞았다.²⁾

4)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위기

슈밥을 비롯한 시중의 4차 산업혁명은 3차 디지털 혁명의 연장이다. 필자가 정의하는 4차 산업혁명이란 “‘컴퓨터 공학, 정보공학, 나노공학, 로봇공학, 생명공학, 뇌과학, 신경과학, 양자역학, 우주항공공학’ 등을 융합해 이룩한 기술을 기반으로 생명을 조작하고 창조하는 신의 지위에 오르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초인적인 능력을 갖는 포스트휴먼으로 거듭난 인간이 다른 인간, 인공지능, 모든 사물들과 초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소통하며, 실제 현실/증강현실/가상현실에서 매트릭스적 실존을 하면서 디지털상으로 자신을 무한 복제하고 영생을 누리는 동시에 인간처럼 말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기계나 생명을 만나 인류 역사 이래 전혀 다른 조건, 정체성, 세계관과 패러다임, 삶, 사회를 구성하는 대변화”를 뜻한다(이도흠, 2020: 23~24).

인간은 생명을 창조하고 조작하는 호모 데우스의 지위에 올랐다. 딥러닝으로는 뇌신경가소성 등 여러 사유로 불가능하지만, 인간의 뇌신경세포를 모방한 뉴로모픽칩(neuromorphic chip) 기술을 활용하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강인공지능(Strong AI)의 제작이 가능하다. 현재 기술로도 생명체의 DNA와 로봇을 결합하여 생물학적 로봇인 바이옷(Biological

- 1) 하비에 의하면, 민영화, 상품화, 금융화, 위기의 관리와 조작, 국가의 재분배라는 네 가지 양상을 포함하여 특허 및 지적소유권으로부터의 지대 추출, 한 세대 이상의 계급투쟁으로 획득한 다양한 형태의 공적 소유권의 완화, 또는 제거, 국가의 모든 연금 지급권의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메커니즘에서 일반화된 축적 상품화, 사유화, 식민지 자원의 수탈, 노예화, 신용을 통한 수탈 등이 탈취에 의한 축적이다.
- 2)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요인과 상쇄요인을 비롯한 이에 대한 상세한 논증은 이도흠, 『4차 산업혁명과 대안의 사회 1: 의미로 읽는 인류사와 인공지능』(특별한 서재, 2020: 183~205)을 참고하라.

robOT, Biot)도 제작할 수 있다. “2020년 1월에 터프트대학의 앨런디스커버리 센터(Tufts University’s Allen Discovery Center)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은 아프리카 발톱개구리(Xenopus Laevis)의 줄기세포를 배양하여 슈퍼컴퓨터가 설계한 기계 몸체에 결합시켰다. ‘Xenobots’라 명명된 이것은 헤엄치고 걷고 먹이를 먹지 않고도 몇 주 동안 살아남았다”(Brown, 2020).

비단 로봇 때문만은 아니지만, “미국 일자리의 47%가 자동화의 높은 위협에 처해 있다”(프레이·오즈번·울프, 2016: 173).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현재 고스트 워크(Ghost work)가 새로운 노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인터넷과 온라인 기업이 대형화하면서 법적 지위도, 조합도 없이 임시직으로 보조 역할을 하는 고스트 워크가 발생했다. “이들은 지금 조앤이란 여성이 아마존닷컴이 운영하는 엠터크에서 음경 사진을 거르는 일을 매일 10시간씩 수행하고 40달러를 버는 것처럼”(그레이, 2019: 13~14), 인공지능이 작업을 하다가 놓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부수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보조 노동을 하고 있다. “이대로 방치될 경우 수억 명의 노동자들을 눈에 안 보이는 존재로 만들 수도 있다”(ibid: 13).

가장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한 불평등의 극대화와 노동운동의 무력화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을 다루거나 알고리즘을 제작/관리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노동자 사이의 차이는 더욱 현격하게 벌어질 것이다. 로봇의 노동 대체가 극대화하면, 노동거부로 자본에 대하여 저항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노동거부로 맞서면 이제까지는 자본이 마지못하여 협상에 나서거나 양보했지만, 앞으로는 그 자리를 로봇으로 대체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대다수가 ‘쓸모없는 자’로 전락한 데 더하여 파편화하기에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은 더욱 어려워지고 그들을 무시해도 자본의 이윤 창출에는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배달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새롭게 조직하여 단결투쟁을 진행하는 데서 잘 나타나듯, 노동자는 변화된 조건에서 다른 방식으로 끊임없이 저항할 것이다.

지금부터 대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21세기에는 로봇이 숙련 노동자와 반복 작업을 거의 모두 대체하고, 노동의 대가가 로봇 소유주로 이전하여 노동시장을 전면적으로 파괴하고 0.0001%의 로봇 소유주와 플랫폼 기업 소유자에게

소득이 집중되어 0.0001% 대 99.9999%의 사회가 될 것이다.

3. 위기의 원인

이렇게 여러 위기에 놓인 원인은 여러 가지다. 핵심이자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 체제다. 자연 자체는 물질대사를 하며 순환하는 생태계인 것인데, 이 순환이 파괴되어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까닭은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가 이 순환을 교란시키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확대재생산의 원리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기에 자본의 탐욕은 끝없이 증식되기 마련인데, 자본이 증식되면 될수록 자연은 착취당한다. 자본주의는 선과 악, 이타와 이기의 혼합체인 인간이 후자에 더욱 기울어지도록 유혹하고, 개인이 신과 인간보다 돈을 더 섬기면서 서로 경쟁하고 욕망을 증식하며 더 많이 소비하도록 조장한다. 이 체제는 탐욕과 이기심, 경쟁심을 견제해야 할 이성마저 도구화하면서 모든 시스템과 과학기술을 계산이 가능한 목적에 종속시킨다. 자본은 이윤을 위해서라면 살인, 쿠데타, 인간과 생명의 대량학살, 전쟁도 불사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와 동맹을 맺는다. 자본은 물질계에 이어서 정신과 무의식의 영역까지 시장으로 전환하고, 사물·자연·인간의 가치를 배제하면서 이를 교환가치로 대체하여 물화(物化)와 소외를 심화하고 공동체를 파괴한다. 모든 생산수단은 물론 인류와 생명의 공동자산인 땅, 숲, 바다마저 사유화하며 자연을 마구 개발하고 착취하여 불임의 체계로 전락시켰다.

자본주의 체제와 결합한 산업화를 단행하면서 인간 사회는 화석연료를 에너지로 삼으면서 연소하고 남은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방출하였으며, 수많은 상품을 생산하며 중금속과 독성물질, 플라스틱을 대기와 땅, 강과 호수, 바다로 배출하였다. 자본주의적 산업화는 도시화를 촉진하고 인구를 증가시켰다. 2008년을 기점으로 도시 인구가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절반 이상이 순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감을 의미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세계 인구는 78억 4,064만 명에 달한다(www.populationmatters.org). 78억 명의 인구가 매일 호흡하고 먹고 활동하고 소비하면서 수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이 체제 안에서 국가와 자본의 동맹체는 경기를 부양하고 개발이익과 권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개발/토건 사업을 진행한다. 그들은 홍수 예방, 수자원과 에너지 확보, 농지 및 공업용지 조성, 고용 창출 등 국가발전이나 국민적 필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비용 대비 효과를 산출하면 대규모 토목사업은 마이너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효과를 부풀리며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고 무수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던 원주민이나 마을 공동체를 파괴한다.

둘째, 자본주의 체제와 산업사회에서 과학기술이 도구화하기 때문이다. 후기 자본주의 체제에 와서 과학기술과 산업생산이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었다. 이로 인하여 계몽적이고 소통적인 합리성은 후면으로 사라지고 과학기술은 도구화하였다. 자본은 재정을 과학기술에 투여하는 대가로 독점권을 행사하여 이 기술로 파생된 상품의 판매로 막대한 이윤을 획득하며, 국가는 국가의 부를 늘리고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투자/지원한다. 과학기술의 종사자들은 높은 연봉과 기술료, 보상을 받기 위하여 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셋째, 제국주의와 제국의 착취와 폭력, 중심이 주변부를 착취하는 세계체계(world system) 때문이다. 제3세계는 “서구적 산업모델 및 서구식 근대화와 농업, 대형농장체제의 수용 → 생산 및 인구의 증가 → 산림의 개발과 비료와 농약의 과다 사용 → 산림 파괴, 토양의 사막화 → 강수량 저하와 지하수 및 하천수 감소,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 가뭄과 식수 고갈 → 농촌공동체 파괴와 흉년, 기근, 혹은 내전과 전염병 → 독재 및 서구 종속 심화”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넷째, 기계론적 세계관 때문이다. 뉴턴의 기계론적 물질관과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心身二元論)은 세계를 이분법으로 나누고 환원주의적으로 바라보면서 자연에 대한 착취와 개발을 정당화한다.

다섯째, 인간중심주의 때문이다.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이 전 지구의 중심에서 자연을 착취하고 개발하며 다른 생명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학살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4. 간헐적 팬데믹 시대의 전망과 대안

1) 코로나 이후 사회의 전망

코로나 이후 세계는 어떻게 흘러갈까. 성곽시대(키신저)나 새로운 공산주의(지젝)가 도래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가 결정된 것도 아니며 함부로 예측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다양한 변인들이 다양한 결과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아주 미세한 요인들이 서로 얽히고 연쇄반응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결과를 구성할 수도 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와 국가, 자본, 시민들은 통제 대 자율, 이기적 각자도생 대 이타적 상생, 경쟁 대 협력, 자연파괴 대 생태적 공존, 물질 중심 대 탈물질주의, 불평등 대 평등을 놓고 갈등을 하고 담론과 헤게모니 투쟁을 벌일 것이며,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버전의 국가와 사회가 전개될 것이다.³⁾ 하지만, 길게 볼 때, 우여곡절도 많고 갈팡질팡하고 퇴행도, 반동도, 저항도 많겠지만 점차 후자를 지향하는 사회로 이행할 것이다. 그것 말고는 인류가 멸망하지 않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에서 생태계,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국가, 사회와 개인으로 나누어 전망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이럴 때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다. 이 체제가 유지되는 한, 불평등의 극대화, 환경과 생명의 위기, 기후위기, 노동의 위기는 더욱 심화할 것이며 4차 산업혁명명은 디스토피아로 귀결될 것이다. 대부분의 문제는 생산과 생산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발전된 생산력을 사용하고 분배하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서 기인한다. 예로 들자면, 세계 식량 생산은 78억 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생산되는데, 다국적 식량 기업의 독점과 분배의 모순으로 인하여 8억여 명이 기아에 허덕인다. 이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는 양, “4,000억 달러(약 439조 원)어치의 음식물 쓰레기를 매년 버리는데 그중 3,000억 달러어치는 줄일 수 있다”(http://www.wrap.org.uk/c).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102.3%인데”(https://www.index.go.kr), “자가주택비율은 56.8%에 지나지 않는다”

3) Yuval Noah Harari(2020.3.20)에서 약간 시사를 받았지만, 필자는 국가의 결정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국가, 자본 사이의 역동적인 헤게모니 투쟁의 관계로 파악한다.

(<https://www.index.go.kr>).

간헐적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은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다. 물론, 자본은 기술개발, 새로운 시장의 창출,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의 유연성, 대중조작, 금융사기를 통한 합법적 수탈, 공간의 재조정 등의 상쇄요인을 총동원하여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를 막을 것이다. 이 체제는 코로나 위기조차 빠르게 극복할 것이다. “IMF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2020년에 세계 경제는 - 3.5% 역성장을 하였지만 2020년에 5.5%, 2022년에 4.2%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IMF, 2021).

앞으로 간헐적 팬데믹은 세계화를 통한 자본축적에 계속 위협을 가할 것이다. 2030년, “이때가 오면,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은 발전 및 차량 연료로서의 위치를 상실할 것이기에”(세바, 2015: 21), 사물인터넷을 초연결하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전 세계 차원에서 공유하는 것이 점점 더 영역을 넓힐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에너지를 생산했던 화석연료는 좌초자산으로 몰락하고 있다. 우버의 형식이 아니라 위키피디아 형식의 공유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5%에서 30%를 넘을 경우 자본주의 체제는 임계점에 이를 것이다.⁴⁾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을 사회화하는 데 시민사회와 국가가 합의할 경우 자본주의 체제는 붕괴하거나 주변화할 것이다.

2) 대안사회와 대안

대안은 무엇인가. 이제 자본주의와 결별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우리는 이제 400년 자본주의와 다른 사회를 상상하고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는 원인과 구조적 모순에 대한 통찰에서 비롯된 과학적이고 변증법적인 인식이다. 한 기업에서 임금이 300배나 차이가 날 정도로 사회 해체 수준에 이른 극단적인 불평등, 38%의 멸종을 야기하고 있는 기후위기, 코로나 19 팬데믹의 근본 원인은 모두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이다.

4) 우버식의 공유경제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플랫폼을 매개로 남는 자동차, 여분의 방과 노동력 등 자투리의 가치를 모아 지대(地代)로 전환하고 여기에 노동을 결합하여 잉여가치를 과도하게 착취하기에 공유의 가치와 대립한다.

지난 30년을 통해서 보았듯이, 탄소세 등 모든 대안이나 혁신적이고 참신한 개혁책조차 자본주의는 결국 이윤과 탐욕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IPCC의 지적대로, 우리가 과국을 맞지 않으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약 45%를 감축해야 한다. 시간만 많다면 우주 공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마이크로웨이브로 전송하는 것처럼 생태적 기술로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재의 조건에서 10년 안에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한 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임계점을 이미 넘어섰다.

이제 패러다임부터 전환해야 한다. 먼저 자본주의적 가치 평가의 혁신이 필요하다. 교환가치를 중시하는 데서 사용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전환한다. 이는 가치관과 패러다임과 함께 물질 토대와 제도의 혁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과 국가 정책에서 자연의 본래 가치를 교환가치로 대체하여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쌀 한 가마의 가격을 매긴다면, 지대, 비료와 농약 값, 농부가 노동한 가치, 종자 값만 가치로 따졌다. 햇빛, 물, 꽃가루받이를 한 바람이 없으면 쌀 생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를 만드는 데 인간이 전혀 관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의 가치를 형성하는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공태양을 써서 쌀을 자라게 한다면, 인공태양의 빛은 교환가치를 갖는다. 그렇다면, 햇빛의 교환가치를 인공 태양을 매개로 추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보편화하면, 나라나 지역의 경제도 GDP나 무역량 등 경제적인 가치만이 아니라 자연의 내재적 가치도 포함하여 평가하고 경제개발 계획이나 정책을 입안하게 될 것이다(Harribey, 2008: 202).⁵⁾

다가오는 시대는 “GDP보다 그 나라의 강과 숲에 얼마나 다양한 생명들이 살고 있는지, 국력보다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얼마나 미소를 짓고 있는지, 국부를 늘리기보다 얼마나 가난한 이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기업 이윤을 늘리기보다 얼마나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자기실현으로서 노동을 하는지,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기보다 못난 놈들이 얼마나 자신의 숨은 능력을 드러

5) 시사를 받음.

내는지, 내기하고 겨루기보다 여러 인종과 종교와 이념을 가진 사람과 인공지능이 함께 모여 얼마나 신나게 마당에서 노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를 경영하고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이도흙, 2015).

“양적 발전보다 삶의 질, GDP보다 국민의 행복지수, 경쟁보다 협력, 개발보다 공존, 권력과 자본보다 마음의 평안을 더 중시하는 사회; 많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보다 자비심이 많은 이들이 더 존경받는 사회; 머리카락이 아니라 아픈 곳이 내 몸의 중심이듯, 가장 약한 자들이 고통받는 곳이 이 나라의 중심이라며 모든 국민과 지도자가 그 사람들에게 먼저 달려가는 사회; 타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자비심이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동력이 되는 사회;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작든 크든 자비심을 가지고 그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하는 사회; 내가 바라는 것이 떠오르는 순간 타인을 생각하며 그에게 먼저 베푸는 사회;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걸으며 모든 것을 나누며 모두를 위한 밥을 추구하는 사회; 자신이 갑의 위상에 있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모든 권력을 포기하고 을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회; 정의와 불의, 선과 악, 이타심과 이기심이 대립할 때 결국에는 전자가 후자를 이기는 사회;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내 마음의 평안과 타인과 함께 구원/열반에 이르는 것이며 이를 향하여 걷거나, 앉았거나, 누워 있을 때라도 즐지도 게으르지도 말며 깨어 있을 때는 언제나 자비심을 낼 뿐만 아니라 알아차림을 서로 키우는 사회를 지향한다”(Rahula, 1974: 88~89).⁶⁾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마을에서 시작하여 지역, 국가, 대륙,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이 가능하고 순환이 가능한, 무위(無爲)의 자연(自然)을 구성하는 ‘빈틈[虛]’을 조사하여 이를 총량제 차원에서 관리하고 복원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취하되 10년을 목표로 수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마을에서 시냇물이 흐르며 자연정화하며 물을 늘 맡게 유지할 수 있는 양이 10톤인데 11톤의 오염물질이 버려지고, 마을의 사람들과 가축, 공장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5톤인데 마을의 숲과 냇물의 미생물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4톤 이라면, 목장과 공장에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을 정화하여 10톤 이하

6) 참고하되 약간 수정하였음.

로 낮추고, 마을 공장에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하고 숲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5톤을 넘어설 때까지 조림을 하는 것이다. 이후에는 마을에서 가축의 수를 늘리고 공장을 증설하더라도 총량제의 차원에서 ‘빈틈’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지역, 국가, 대륙, 전 세계로 확대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주민의 참여와 이해와 설득,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세계체제(world system)는 국제간 연대를 확대하면서 장기적으로 중심과 주변 사이의 평등한 체제로 전환한다. 국제 사회가 각자도생을 추구하면서 코로나19는 더욱 널리 퍼졌고 더욱 많은 사람을 감염시켰으며 수많은 살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2021년 2월 6일 현재 총 81개의 임상실험이 진행되고 있고 이 가운데 10개가 허가나 승인을 받아 접종되고 있는데”(https://www.nytimes.com), 코백스(Covax Facility)를 통한 백신 공급체계도 무너져 부자나라들이 백신을 독점하고 있다. 결국, 화이자와 같은 다국적 제약회사에 수조 원의 이익을 안겨주고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국민은 이에서도 소외되었다. 국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백신을 국제적으로 공동개발하고 이를 특히 없이 공유하고 공급하였으면, 최소의 비용으로 의료 정의를 세우면서도 코로나19의 퇴치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다. 한국처럼 국토가 좁고 인구가 밀집한 나라에서 숲을 파괴하고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카드 돌려막기’와 유사하다. 고비, 사하라 사막 등에 부자나라들이 기금을 내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기존의 송전시설과 초연결사회를 결합하여 대륙별로 공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연대를 위하여 중심의 강대국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UN을 대체하는 평등한 국제기구를 구성하여 집단의 안보체제를 구축하고, IMF를 대체하는 금융기구, 제3세계 공동의 은행을 설립하여, 제3세계의 호혜적인 경제, 교육, 문화, 환경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AP, UPI, REUTER, AFP 등 4대 통신사가 장악하던 뉴스와 정보의 왜곡된 흐름을 견제하기 위하여, 제3세계 60여 개 나라의 통신사가 모여 NANAP를 구성했던 것처럼, 중심국만이 아니라 제3세계 관점의 뉴스와 정보, 데이터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흐르도록 공동의 통신사/데이터센터를 결성한다. 제3세계가 함께 구성하고 예산을 분담하여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대항할 만한 플랫폼을 만든다. 전 세계의 모든 유무선 통신을 도·감청하고 사찰

하는 미국의 에셜론시스템(Echelon System)과 프리즘을 국제법으로 해체시킨다.

더 나아가 세계공화국을 건설한다. 전 세계 시민의 참여와 숙의를 거쳐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이후의 인류사회를 전망하되, 인류의 공존공영과 자연과 생태적 조화를 모색하는 세계 헌법 초안을 만든다. 이에 따라 세계의회를 구성하고, 세계 정부, 세계 사법부를 구성한다. 초연결사회는 직접 민주주의와 숙의민주제를 결합한 새로운 차원의 민주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세계 의회는 절대 국가별, 인종별로 안배하지 않는다. ‘뭉 없는 자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전 세계 시민을 직업이나 직능별로 구분하고 그 직업과 직능 안에서 무작위로 추첨을 하여 대표자를 정한다. 예를 들어, 세계 의회의 정족수가 1,000명이고, 전 세계 18세 이상 인구 가운데 노동자가 40%, 학생이 5%라면, 노동자 가운데 400명, 학생 가운데 50명을 의원으로 선정하여 세계시민을 대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남녀 비율 또한 5 대 5로 한다. 이럴 경우 그들의 능력과 수준을 염려할 수 있는데, 일정 이상의 정신병력이나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제한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뽑을 경우 문제될 것이 없다. 집단지성의 힘이 엘리트를 능가하는 것이 디지털 사회의 특징이다. 대중이 집단적으로 작성한 위키피디아가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석학과 전문가들이 기술한 브리태니카보다 낫다. 아일랜드 등에서 실험한 결과, 정책이나 사안마다 전문가 토론과 숙의를 거칠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평범한 시민들이 더욱 공정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하였다. 중요한 정책마다 유튜브(YouTube)로 정책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하고 이를 시청한 후 세계 시민이 초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투표하는 것이다. 이는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은 채 가능할 것이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굶주려 죽는 사람을 막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다. “해마다 대략 1,500억 달러를 10년 동안 투자한다면, 지구상의 모든 가난한 이들이 기초적인 교육과 의료와 위생 시스템을 보장받고 적절한 영양, 식수, 여성의 경우 적절한 산부인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UNDP, 2006). 넉넉잡고 2천억 달러면 10억 명의 굶주리는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굶어 죽지 않게 함은 물론 그들에게 기초적인 의료와 교육을 실시하는 체제를 만들 수 있다. 그럼에도 해마다 기아에 허덕이는 8억 5백만여 명이 먹고도 남는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며, “미국 한 나라에서만 너무 먹어서 비만 관련

의료비로만 2014년 한 해에만 1,494억 달러를 지출하였다”(Kim and Basu, 2016: 602). “전 세계는 군사비로 2019년 한 해에만 1조 9,170억 달러를 썼다”(SIPRI, 2020: 10). 제3세계 공동의 안보체계를 수립하고 군사비를 매년 현재 수준에서 10% 정도를 줄여 기금을 조성하여 굶주려 죽는 이들을 영구히 막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시민사회는 국가가 자본과 결별을 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생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글로벌 그린뉴딜로 전환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2차 세계대전 때 과학기술, 예산, 정책, 국민을 전쟁 승리에 맞추어 총동원한 것처럼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면 아직 길은 있다. 비용이 들겠지만, 그것은 그만큼 일자리를 창출한다”(닐, 2011: 67~71). 국가가 4차 산업혁명을 공공선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선도함은 물론,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이에 맞추어 과감한 개혁을 단행한다. 국가는 모든 생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에너지 체계와 산업체계를 혁신한다. 핵발전소는 폐기하고 재생에너지와 지역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며,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네트워크체계를 결합하여 에너지를 분배한다. 굴뚝산업은 단계적으로 생태친화적 제조업으로 전환한다. 나만의 빵과 행복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빵과 행복을 추구한다. 의료와 주택, 교육은 단계적으로 무상화하며, 이를 위해 살찐 고양이법 제정, 부유세 등 조세혁명 등을 단행한다. 모든 분야에서 엘리트 및 1%의 독점을 깨는 참여민주제, 숙의민주제에 묶여 있는 자의 민주제를 결합하여 권력기관과 조세기관을 시민이 위원회 형식으로 통제하고 그 수장을 시민이 직접 선출한다.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로봇의 사회화와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노동 나눔의 제도화, 놀이와 예술을 종합한 노동의 창조, 로봇 노동의 제도적 제한이다. 토지, 물, 지식, 데이터, 로봇은 공유부(common wealth)로 설정하고 이에서 나온 재원으로 로봇, 의료, 교육, 주택, 교통을 사회화하여 공유의 영역에 둔다. 국가는 로봇의 100% 사회화를 목표로 로봇이란 생산수단을 점진적으로 사적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한다. 로봇에 관련된 기술은 로봇공학, 컴퓨터공학, 생명공학, 뇌과학, 빅데이터를 종합한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축적되고 융합된 것이기에, 이 기술은 사회의 소산이며 개인이나 기업이 독점할 수 없다.

기술에 관련된 연구 또한 사회적 생산의 결과다. 이제 이 기술과 로봇을 사회가 점진적으로 공유한다. 당분간 국가 소유의 로봇과 기업이 사적으로 소유한 로봇으로 이원화할 것이다. 기업이 소유한 로봇에 대해서는 로봇세를 높은 세율로 부과한다. 공유 로봇에서 생산한 가치와 로봇세로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 무상교통을 핵심으로 한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로봇으로 일자리를 잃은 자들에 대한 재교육과 실업수당 등 사회적 안전망 확보 등의 재정으로 활용한다. 국가와 시민사회가 합의를 거쳐서 강 인공지능의 노동, 인간과 로봇의 협업, 인간만의 노동 범주와 직종을 결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정한다.⁷⁾

이렇게 하여 단순 반복 작업과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로봇에 맡기고 인간은 수렵시대의 사람처럼 주당 20시간 이하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남은 시간은 여가를 즐긴다. 노동 또한 아이들이 미래성을 짓는 것처럼 일과 놀이, 예술이 종합한 노동으로 전환한다. 그리하여 노동을 통하여 진정한 자기실현을 하며, 이것이 즐거운 놀이가 되고, 노동을 하며 행위자가 늘 창의성을 구현하며, 거기서 창출한 잉여가치는 착취당함이 없이 자신과 사회의 몫으로 한다. 이 경우, 인류는 억압받지 않고 착취를 당하지 않는 노동으로서 소극적 자유, 이 세계를 노동을 통하여 개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면서 자신의 본성을 구현하며 진정한 자기를 실현하는 적극적 자유, 생산한 잉여가치를 타자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투여하는 데서 얻는 대자적 자유를 구현하는 노동, 일과 놀이와 예술의 종합을 이루는 노동을 달성할 수 있다.

개인과 사회도 변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죽어가고 있다. 당신에게 타인의 고통은 ‘하룻밤의 진부한 유흥거리’였는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안도감’이었는데, 그 고통의 원인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무고함’을 증명하는 것이었는데, 아니면 자신이나 자식이 아픈 것만큼

7) 지금까지는 인간의 노동만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고, 인간을 닮은 인공지능, 곧 안드로이드가 아무리 인간과 유사한 노동을 하더라도 이는 노동이 아니라 기계의 작업일 뿐이며 스스로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산한 가치가 이전된 것이다. 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지능을 넘어선 인공지능이 창조한 AI가 생산할 경우에는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선 노동의 정의도 달라져야 하고 가치에 대한 논증도 필요하다. 지면 관계상 후술하기로 한다.

고통스러워하며 아픈 곳을 우선하는 것이 정의라며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는가.⁸⁾ 이제 죽어가는 사람과 생명의 고통을 내 병처럼 아파하는 공감을 바탕으로 욕망을 자발적으로 절제하고 다른 사람과 생명을 섬기며 자비를 베푸는 삶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우리 자식에게 22세기는 없다.

5. 맺음말

우리는 거의 종점에 와 있다. 이 종점의 다음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아직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종점에서 지나온 길을 볼 때 올바르게 성찰할 수 있다. 위기는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올바르게 모색할 때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전환점이기도 하다. 지금은 ‘빈틈’이 사라진 시대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자연파괴와 불평등을 완충시킬 빈틈이 없다.

10년 안에 빈틈을 만들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는 없다. 어디에 있던 가까운 숲으로 가서 바람 따라 잎들이 어떻게 서로 소통하며 신바람 나게 일하고, 햇빛 따라 꽃들이 어떻게 노래를 하며 씨를 키우고, 물 따라 풀과 나무가 어떻게 춤추는지 가슴 깊이 호흡해 보자. 그리 깃든 생태적 감수성으로 우리로 인하여 그들이 나고 자라고 변하고 사라지는 일들을 얼마나 제대로 못하는지, 얼마나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고 있는지 침묵하며 성찰하자. 자기 땅에서도 쫓긴 채 억압받고 신음당하며 굶주려 죽어가는 난민, 해고노동자, 비정규직, 고스트워크 노동자, 폭력을 당하는 여성 등 모든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내 아픔처럼 공감하자. 어두울수록 맑아지는 별을 바라보되, 발을 디디고 있는 현실을, 그 안에 내재된 모순을 냉철하게 직시하자. 그 공감과 이성을 바탕으로 ‘자비로운 분노’를 하면서 모든 부조리한 구조와 탐욕적 소수들과 싸우는 전사가 되자.

(2021년 1월 1일 투고, 1월 29일 심사, 2월 9일 게재 확정)

8) 이 대목은 수전 손택의 『타인의 고통』, 이재원 옮김(이후, 2004), 154쪽에서 낱말을 차용한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어, 엘. 1993. 『위기의 지구』. 이창주 옮김. 삶과꿈.
- 그레이, 메리·시다스 수리. 2019. 『고스트워크』. 신동숙 옮김. 한스미디어.
- 김유리. 2020.1.28. “서울 ‘상위 10%’ 종합소득, 하위 10%의 194배”. 《한국세정신문》.
- _____. 2019.10.10. “소득 쏠림 현상..배당소득, 상위 0.1%가 45.7% 차지”. 《한국세정신문》.
- 널, 조너선. 2011. 『기후위기와 자본주의』. 김종환 옮김. 책갈피.
- 리프킨, 제러미. 2014. 『한계비용 제로 사회: 사물인터넷과 공유경제의 부상』. 민음사.
- 박민철. 2020.8.2. “아마존 열대우림 산불, 7월에만 6091건…작년 14.5% ↑”. 《문화일보》.
- 세바, 토니. 2015. 『에너지혁명 2030』. 박영숙 옮김. 교보문고.
- 손택, 수전. 2004. 『타인의 고통』. 이재원 옮김. 이후.
- 송기균. 2012. 『고환율의 음모』. 21세기북스.
- 송채경화. 2020.5.7. “200대 기업 CEO 평균 보수 6억8783만 원…직원 8.7배”. 《한겨레신문》.
- 슈밥, 클라우스. 2016.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송경진 옮김. 새로운현재.
- 윌킨슨, 리처드. 2008. 『평등해야 건강하다』. 김홍수영 옮김. 후마니타스.
- 윤신영. 2020.8.21. “코로나에 몰두하는 사이 심상찮은 지구 기후 … 북극권 빙하·영구동토층 위기”. 《동아사이언스》.
- 이근영·박기용·최우리. 2020.7.29. “한국 온난화 속도,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넘게 빠르다”. 《한겨레신문》.
- 이도흠. 2015. 『새로운 정치세력의 가치와 노선』. 국민모임. 『야권 교체 없이 정권교체 없다 - 국민모임 서울 대토론회』(1.15).
- _____. 2020. 『4차 산업혁명과 대안의 사회 1: 의미로 읽는 인류사와 인공지능』. 특별한서재.
- 이윤정. 2017.1.16. “슈퍼 갑부 8명의 재산, 세계인구 절반의 재산과 비슷”. 《경향신문》.
- 《옥스팜 보고서》. 2020. 1월호. 2쪽.
- 《월간 노동리뷰》. 2020. 2월호. 88쪽.
- 《월간 노동리뷰》. 2020. 5월호. 93쪽.
- 프레이, 칼 베네딕트·마이클 오즈번·마틴 울프. 2016. 『기술낙관론에 대한 반박: 미래는 과연 황홀하기만 할 것인가』. 클라우스 슈밥 외. 『4차 산업혁명의 충격』. 김진희·손용수·최시영 옮김. 흐름출판. 173쪽.
- 하비, 데이비드. 2007.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최병두 옮김. 한울.

- Brown, Joshua E. 2020. “Team Builds the First Living Robots-Tiny ‘xenobots’ assembled from cells promise advances from drug delivery to toxic waste clean-up.” *annuary* 13 in th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Jan 13.
<https://www.uvm.edu/uvmnews/news/team-builds-first-living-robots> (검색일: 2021.1.1).
- Climate Action Summit 2019. 11 December 2019.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2019 Climate Action Summit and the Way Forward in 2020*, p. 3.
- Gaglioti, Frank. 2020. “Australia: Climate change and the bushfire crisis.” World Socialist Website. <https://www.wsws.org/en/articles/2020/01/04/clim-j04.html> (검색일: 2020.12.22).
- Harari, Yuval Noah. 2020. “The world after Coronavirus.” *Financial Times*, March 20. 2021.
- Harribey, Jean-Marie. 2008. “Ecological Marxism or Marxian Political Ecology?” Jacques Bidet and Stathis Kouvelakis(eds.). *Critical Companion to Contemporary Marxism*. Leiden/Boston: Brill, p. 202.
<http://www.wrap.org.uk/content/reducing-food-waste-could-save-global-economy-300-billion-year> (검색일: 2020.2.8).
<https://coronaboard.kr/> (검색일: 2021.2.8).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I.POV.GINI?end=2018&name_desc=true&start=2018&view=map (검색일: 2021.1.1).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27 (검색일: 2021.1.1).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39 (검색일: 2021.1.1).
<https://www.nationaldebtclocks.org>. (검색일: 2020.7.2).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0/science/coronavirus-vaccine-tracker.html>. (검색일: 2021.2.6).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424159/pay-gap-between-ceos-and-average-workers-in-world-by-country/> (검색일: 2021.1.1).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82732/global-production-of-plastics-since-1950/>
<https://www.worldpopulationreview.com>. (검색일: 2020.7.2).
- Ian, Tiseo. 2021. “Global plastic production 1950-2019.” Jan 27.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82732/global-production-of-plastics-since-1950/#statisticContainer> (검색일: 2021.2.8).
- IMF. 2021.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1/01/26/2021-world-economic-outlook-update> (검색일: 2021.2.8)
- Jambeck, Jenna R.·Roland Geyer·Chris Wilcox·Theodore R. Siegler·Miriam Perryman·Anthony Andrady·Ramani Narayan·Kara Lavender Law. 2015. “Plastic waste inputs from

- land into the ocean.” *Science*, Vol.347, p. 768.
- Kim, David D. and Anirban Basu. 2016. “Estimating the Medical Care Costs of Obesity in the United States: Systematic Review, Meta-Analysis, and Empirical Analysis.” *Value in Health*, Vol. 19, July - August, p. 602.
- Maito, Esteban Ezequiel. 2014. “The Historical Transience of Capital-The downward trend in the rate of profit since XIX century.” *MPRA paper 55894*. Munich: University Library of Munich.
- Rahula, Walpola. 1974. *What the Buddha taught: with a foreword by Paul Demieville and a collection of illustrative texts*. New York: Grove Press.
- Ritchie, Hannah and Max Roser. 2020. “CO₂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co2-and-other-greenhouse-gas-emissions> (검색일: 2020.12.22).
- SIPRI. 2020. *SIPRI Yearbook 2020-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Summary*, 2020, p. 10.
- UNDP. 2006. *Annual Report 2006-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New York.
- _____. 2007.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Fighting climate change: Human solidarity in a divided world*.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New York.
- UNEP. 2016. *A Snapshot of the World's Water Quality: Towards a global assessment*.
- Vié, Jean-Christophe, Crig Hilton-Taylor and Simon N. Stusart(eds.). 2008. *Wildlife in a Changing World, an analysis of the 2008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Gland, Switzerland: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 Wikipedia. 2020. “2019 - 20 Australian bushfire season,” https://en.wikipedia.org/wiki/2019%E2%80%9320_Australian_bushfire_season (검색일: 2020.12.22).
- World Inequality Database: 2020, https://wid.world/world/#sptinc_p99p100_z/US;FR;DE;CN;ZA;GB;WO/last/eu/k/p/yearly/s/false/5.4825/30/curve/false/country (검색일: 2020.6.30).
- World Inequality Database: 2020. https://wid.world/world/#sptinc_p90p100_z/US;FR;DE;CN;ZA;GB;WO/last/eu/k/p/yearly/s/false/24.339999999999996/80/curve/false/country (검색일: 2020.6.30).
- Zampa, Matthew. 2018 “How Many Animals Are Killed for Food Every Day?”. Sentientmedia. September 16, 2018. <https://sentientmedia.org/how-many-animals-are-killed-for-food-every-day/> (검색일: 2020.7.30).

□ 영문초록

The Age of Intermittent Pandemics: the overlap of crises and its alternatives

Doheum Lee

Human society is transitioning to the age of intermittent pandemics, taking the coronavirus outbreak as a starting point. In this era, the crisis of life and environment, the climate crisis, the crisis of the capitalist system, and the crisi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overlap. They are four and one at the same time because they act and sur-determinate as conditions and causality with each other. As a result of environmental destruction, 38% of lives are at risk of extinction, and long-term large forest fires, super typhoons, floods, heavy snow, heatwaves, droughts, fine dust of all time have now become daily life in the global village. Inequality was maximized so that the top 10% occupied more than half of the total wealth. The capitalist system is also in crisis due to a decline in the average profit rate, productivity, and stagnation. Du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labor movement could be neutralized and the society where the top 0.001% monopolizes all values could emerge. Since all causes are fundamentally rooted in the capitalist system and contradictions have already crossed the critical point to be avoided in an improved way, alternatives that do not presuppose the dissolution of capitalism are only a temporizing policy. Civil society should pressure the state to become a free and just ecological welfare state, specifically to make land, data, and robots a commonwealth, and to carry out the Global Green New Deal policy in line with the goal of zero carbon emissions. Now, through this as a medium, the global community should pursue an alternative society beyond capitalism. Individuals also should convert into the life of the wisdom of contentment with less gain(少欲之足) that they voluntarily restrain their desires for others.

Keywords: Coronavirus 19, intermittent pandemics, climate crisis, the crisis of capitalism, alternative society, ecological welfare state